

계란 · 장미축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계란의 우수성 한껏 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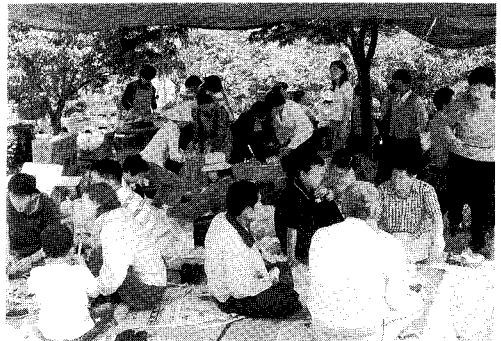
◇ 홍보 팀

경남 산청에서 30만수 규모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산골농장(대표 이상호)은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2회 지리산 산골농장 계란 · 장미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는 소비자들을 농장으로 초청하여 농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계란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산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지난해 부터 시작된 행사이다.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농장으로부터 판매장으로까지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산골농장 대표 이상호 사장은 ‘한번 찾은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계란 우수성 홍보에 적극 나서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청군의 협조를 얻어 실시된 이번 축제는 30여종의 3,000여 그루 장미꽃으로 어우러진 수려한 산골농장을 배경으로 약 1,500여명의 소비자들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SBS(부산방송) 모닝와이드’에 방영되는 등 언론매체의 많은 관심을 모아 경남 산청의 연례 행사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축제는 소비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삶은 계란 예쁘게 까기’, ‘스푼으로 계란 나르기’ 등의 레크레이션과 더불어 10여종의 다양한 계란 요리 시식회를 선보여 한정적인 계란 요리법에 익숙한 주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농장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인 만큼 직접 생산현장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산골농장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산골란, CLA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산골농장의 이미지 쇄신 및 신뢰를 구축하는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 1,500여명이 농장을 방문하였다.



▲생산자들은 농장내 장미꽃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